



## ▲ 유틸리티/철강

Analyst 문경원

02. 6454-4881

kyeongwon.moon@meritz.co.kr

## Overweight

# 유틸리티/철강

## 마침내 마주한 Fit for 55

- ✓ EU의 친환경 정책 패키지 'Fit for 55'의 내용이 14일 공개
- ✓ 탄소국경세 적용,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상향,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등 포함
- ✓ 재생에너지 목표 강화 및 신규 규제는 재생에너지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
- ✓ 탄소국경세가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크지 않으며, 중장기적으로 판가 및 적정마진의 상향으로 이어질 전망

### EU, 탄소 중립을 향한 야심찬 정책 'Fit for 55' 발표

EU는 현지 시간 14일 'Fit for 55'(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55% 저감,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 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다. 가장 주목받았던 탄소국경세를 비롯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상향,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등 다양한 정책 지침들이 발표되었다(자세한 내용은 2p 참고). 이러한 입법 패키지는 지난 1월 통과된 '유럽기후법'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 재생에너지: 강화된 목표, 투자 심리 개선 기대

EU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기존 27%에서 35%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인허가를 가속화하고, PPA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각국 정부들의 재생에너지 설치량 상향 조정이 예상된다. 2030년까지 40GW의 수전해 시스템 설치, 천만톤의 그린 수소 생산을 제시한 수소 분야에서는 표면적으로 큰 정책 변화가 없었다. 다만 항공/해운/육상운송 등 장거리 운송 분야에서 강화된 규제를 제시했는데, 이는 향후 수소 수요를 증가시킬 수 밖에 없는 요인이다. 전반적으로 연초 이후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왔던 재생에너지 산업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판단이다.

### 철강: 탄소국경조정, 한국 철강 산업 내 영향은?

탄소국경조정(탄소국경세)은 EU로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재화가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에 비례해 추가적인 과세를 하는 제도이다.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일부 있으나, 철강 산업 입장에서 보면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EU와 전기로 비중이 비슷해,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의 양이 적기 때문이다. 오히려 EU 시장 내에서 중국 대비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EU 내에서는 철강 생산 CAPA의 감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이 줄어들 시 한국 철강 제품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탄소 관련 비용이 판가 상승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며 철강 업체들의 적정 마진이 상승할 전망이다.

## Fit for 55,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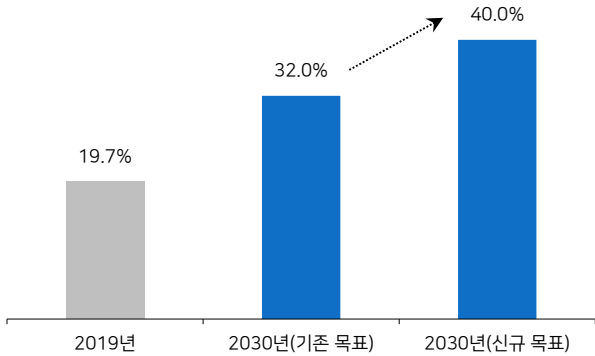
Fit for 55에는 기존 EU가 제시했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친환경 차량 판매 목표 등이 강화되어서 제시되었다. 또한 항공/해운 등 탄소 배출 저감이 어려운 분야에 대한 신규 규제안을 발표한 점도 눈에 띈다. 탄소국경세 적용 내용은 그간 알려진 바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외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 의무화, 바이오매스 에너지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이 눈에 띄는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마침내 마주한 Fit for 55, 주요 내용 요약

분류	주요 내용
친환경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030년 기준 32%에서 40%로 상향</li> <li>친환경 운송과 수소 생산에 대한 크레딧 제도 설립, PPA강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인허가 가속화</li> <li>2026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운송 및 건물 분야로 확대</li> </ul>
에너지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 효율화 목표를 2030년 32.5%에서 36~39%로 상향</li> <li>모든 회원국에게 연간 1.5%, 공공 산업에서는 연간 1.7%의 에너지 효율화를 의무화</li> </ul>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li> <li>2050년까지 운송 분야 탄소 배출량 90% 저감 목표</li> <li>2030년 친환경 판매량 누적 판매량 3,000만대 목표</li> <li>항공 분야: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연간 4.2%씩 감축. 2026년까지 무상 할당량 제로. 2050년까지 지속가능한 연료 비중 63% 목표.</li> <li>해운 분야: 2023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 적용. 5천톤 이상 대형 선박 위주로 규제. 2050년까지 탄소 집약도 75% 감축.</li> <li>육상운송 분야: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승용차 기준 2030년 37.5%에서 55%로 상향</li> <li>인프라: 2050년까지 1,630만개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li> <li>운송 분야에서 13%의 탄소집약도 목표 신설</li> </ul>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사용량 매년 2.1% 증가</li> <li>탄소배출권 거래제 내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61% 감축(2005년 대비)</li> <li>2021년 할당량을 4.5억 개에서 200개+a(탄소국경세)로 하향</li> </ul>
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물 내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최소 49% 달성</li> <li>냉난방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사용량 매년 1.1% 증가 의무, 지역 냉난방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및 폐기물 비중 연간 2.1%p 증가 목표</li> <li>모든 공공건물의 총 면적 중 매년 3%씩을 개조할 것을 의무화</li> </ul>
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30년 까지 EU 내 40GW의 수전해 시스템 설치. 천만톤의 그린 수소 생산</li> <li>친환경 연료 인증 제도에 수소를 포함</li> <li>산업 수소 소비 중 그린 수소 비중 50% 목표</li> </ul>
탄소국경조정 (탄소국경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소배출권을 구매하듯 CBAM 인증서를 구매 가능. 인증서의 가격은 탄소배출권 가격에 변화에 따라 변동</li> <li>2023년~ 2025년까지 탄소국경조정 시범 적용. 2026년부터 본격 적용</li> <li>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분야에 우선 적용. 이후 다른 산업 분야로 확대</li> </ul>
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송 연료는 에너지양 및 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과세. 특정 연료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li> <li>화석 연료에 대한 세제 혜택은 점차 중단</li> </ul>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U 내 탄소흡수량 목표를 2.68억톤에서 3.1억톤으로 상향</li> <li>주요 삼림에서는 목재 채취 금지. 2026년까지 순수 발전용 바이오매스 설비에 대한 지원 중단</li> <li>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모든 열, 전력 생산 설비에 대해 탄소 배출량 제한</li> <li>30억개의 수목을 심을 계획,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채취된 목재에 대한 사용 장려</li> </ul>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 산업에서 2030년까지 백만개, 2050년까지 2백만개의 일자리 창출</li> <li>불안정한 회원국들을 위해 722억 유로 가량의 지원 펀드를 2025~2032년까지 사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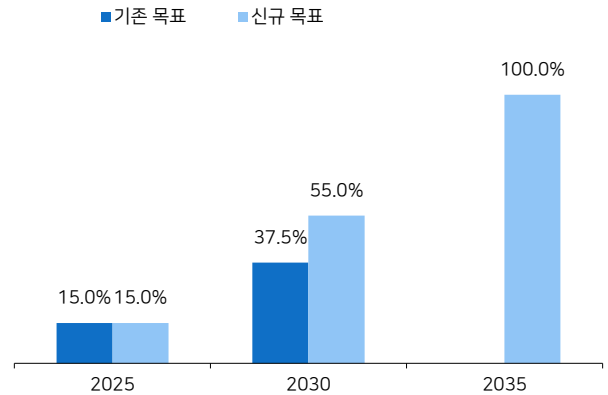
자료: EC,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EU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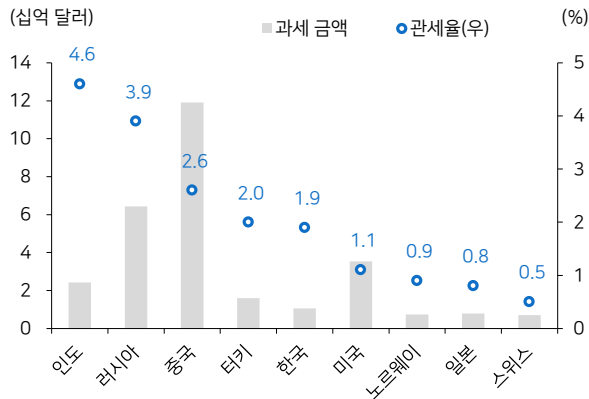
자료: EC,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승용차 탄소 배출 저감량 감축 목표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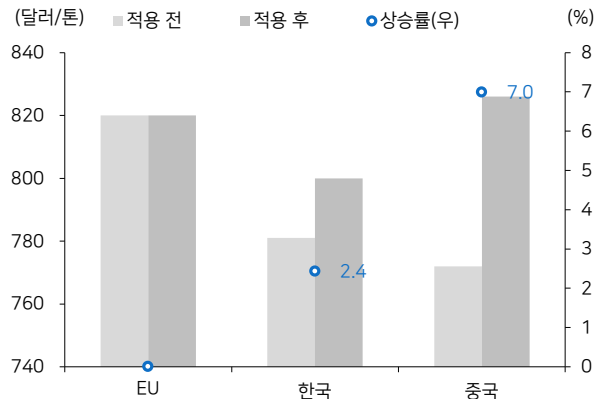
자료: EC,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탄소국경세 부과 시 국가별 예상 관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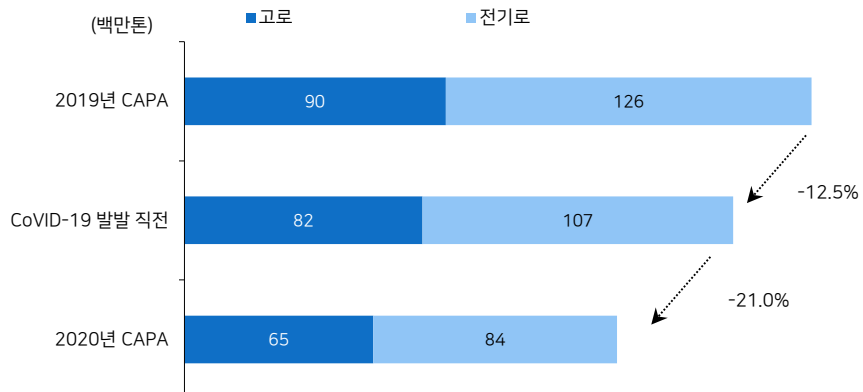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문진영 외 4인),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탄소국경세 부과 시 EU로의 조강 수출가격 변화 예상



자료: NEXT Group, EU 탄소국경조정, 그래서 얼마나 내야하나?: 석유화학·철강 업종을 중심으로(고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EU-28 조강 생산 CAPA 변화



자료: Mckinsey,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